



2026. 10. 29 (목)

심리→편더로 초점 이동과 저점 통과 조건

- SK하이닉스 실적발표 이후 이익 컨센서스 상향 재개, 1Q26 실적시즌 상향
- 오라클, 코어위브 CDS 프리미엄 임계치 이하로 안정
- 주식시장은 10월말-11월초 저점 형성 이후 턴어라운드 중으로 생각

투자전략

Analyst 황수욱

soowook.hwang@meritz.co.kr

10월 8일자 'Strategy Idea: 10월 한국 시장의 고민'에서, KOSPI 지수 반등의 조건으로 반도체 이익 추정치 상향이 관건임을 언급한 바 있음. 지난 7월 이후 반도체 이익 모멘텀의 부재가 시장 상승을 제한해왔고, 반도체가 추세성장이 아닌 시클리컬일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며 주가 하락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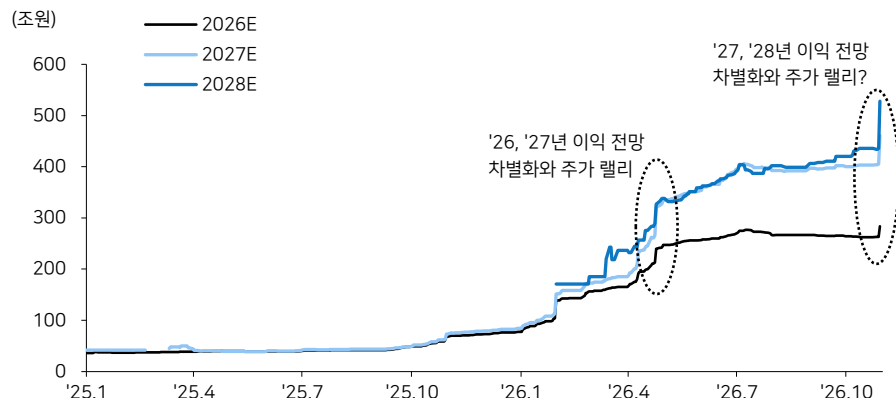
10월 28일 SK하이닉스 실적발표 이후 실적 추정치 상향 랠리가 재개되는 모습.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7년, 2028년 실적 전망을 하던 당사도 이번 실적 발표 이후 향후 전망을 추가 상향, 컨센서스도 당사 전망치에 근접하기 시작

1Q26 실적 시즌을 떠오르게 하는 변화. 실적발표 이후 컨센서스가 상향되면서 '26년 대비 '27년 실적 성장이 뚜렷해지기 시작함. 5월말 레버리지 ETF 출시 이전에 이미 반도체 랠리가 강하게 나타나게 했던 계기였음. 이번에도 실적 전망이 상향되며 10월 초까지 붙어있던 '27, '28년 실적추정치도 차별화되기 시작. SK하이닉스의 2029년까지 사실상 HBM 물량이 완판되었다는 언급에 반도체가 '25, '26, '27년까지 성장이 그치는 3년짜리 사이클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봄

한편 미국에서는 그동안 투자 심리를 누르던 AI 자금조달 우려가 덜어지는 모습. 어제 코어위브, 오라클 CDS 프리미엄이 위험 임계치(1,000bp, 300bp) 이하로 하락. 오라클이 2028 회계연도('27년 6월~'28년 5월) 하반기(사실상 2028년 이후)에 잉여 현금흐름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자들의 AI 자금조달 및 투자 회수 우려를 덜어줌. 최근 빅테크들 자금조달 소식과 더불어 10월 중순부터 글로벌 시장의 투자심리를 눌렀던 AI 자금조달 우려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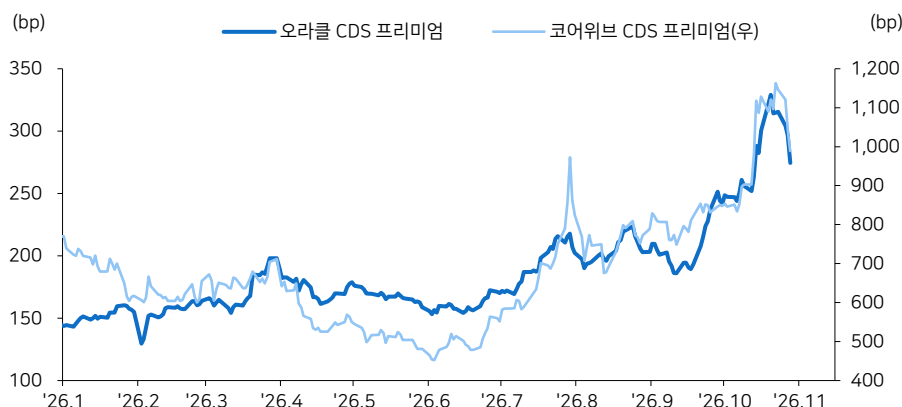
10월말-11월초 한국, 미국 시장 공히 저점을 형성 이후 턴어라운드 중으로 생각

그림1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황 재개: 2027 vs 2028년 전망치 차별화 시작



주: 10/29 데이터는 3Q26 실적발표 이후 발간된 보고서의 실적추정치 중위값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오라클, 코어워브 CDS 프리미엄 위험 임계치 하회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